## 유적지 순례 83

# 판서공(判書公) 휘 엄(諱 儼)의 자손들 (2)



△충성공 균의 신도비와 영모재(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116)



△충성공 사당(영모재 위)



△충성공 별묘(모가면 산내리 마국산)



△17세 현령공 계묘소(모가면 산내리 마국산 상록)

### 16世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 상(詳)과 길 창부원군 형(逈)

휘 상(詳)은 판서(判書)공 엄(儼)의 차자이며 공의의 관직은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이고 배위는 정부인 개성왕씨 낙안군(樂安君) 회(瓊)의 딸이라는 것 외에 상세 기록은 미상이며 계(繼), 선(繕), 소(紹), 승(繩) 4아들을 두었다.

계(繼)는 현령을 지냈으며 태종 7년 군자감(軍資監) 재직시 교역이운마(交易二運馬) 3백필을 가지고 요동으로 갔으며 실록(實錄)에 의하면 태종 13년 모친상을 당하여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처지에 불배(佛排)의 수를 지나치게 하였다 한다. 또 세종 8년 고상호군(故上護軍)을 역임하였다. 고 손 우의정 균(勻)이 귀히 되어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여주군 가남면 삼성리에서 이천 모가면 산내리 선영마국산 상록으로 이장하였다.

손자 미(爾)는 녹사(錄事)이며 균(勻)이 귀히 되어 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호법면 매곡리에서 산내리 선영 선고 계하로 이장하였다.

증손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형(逈)은 무과급제하여 현 감에 이르고 녹도만호를 지냈다.

아들 균(勻)이 귀히 되어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길 창부원군에 봉해졌다. 묘소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마국산에 있다.

#### 20世 충성공(忠成公) 균(匀)

세조 10년 출생하여 식자들은 공이 재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힘써 배워 성종 17년 식년시 생원 진사 양장에 합격하였다. 또 성종 22년 별시문과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승정원 주서로 발탁되고 춘추관(春秋館) 기주관(記注官)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연산군 2년 사간원 정언이 되고 6년 시독관(試讀官)이 된다. 연산군 9년 동부승지(同剧承旨), 연산군 10년 도승지, 연산군 12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연쇄 출세가도를 달렸다. 중종 반정에 도총관(都總管)으로 거사를 도와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에 녹훈되었다.

반정 후 영산군의 녹봉에 시비가 있었으나 평소 도량이 넓고 반정의 공훈이 참작되어 무마되었다.

중종 1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중종 2년 공조판서 (工曹判書), 의정부 좌찬성(左贊成)이 되었다. 경기관찰사 에 이어 중종 3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이배되었으며 내 약방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중종 4년 판의금부사(判義禁 府事)가 되었다. 중종 8년 평안도관찰사, 중종 9년 예조판서 (禮曹判書)로 5년간 봉직하였다. 중종 13년 사은사(謝恩使) 가 되어 김안국(金安國)과 함게 명(明)나라에 다녀와 한성 판윤이 되고 영창군(永昌君)에 봉해졌다. 중종 14년 병조판 서(兵曹判書)와 좌찬성(左贊成)으로 판의금부사(判義禁府 事)가 되었다. 중종 16년 이조판서(吏曹判書)로 보광숭록대 부 영창부원군(永昌府院君)에 봉해졌다. 중종 17년 대광숭 록대부 영경연사(領經筵事)를 배하고 중종 18년 의정부 우 의정(右議政)이 되었다. 중종 20년 압연관(押宴官)으로 일 본 사신을 맞는다. 중종 21년 63세로 졸하니 졸기에 "연산군 이 살육할 때 주선하여 살린 이가 많으니 중히 여김을 받았 다. 인품이 근엄하고 기국이 있어 사람들이 감히 간범치 못 했다. 일을 의논함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정승으로 있으면서 대체(大體)의 보존에 힘썼다. 연산군 말년에 임금 과 가까이 있으며 사람을 살리고 구한 것이 많았다. 신진 사 류(조광조 일파)들이 일을 좌우할 때는 공이 그들과 부앙 (俯仰)할 수 없어 사직하니 평판이 아름다웠고 다시 정권을 장악함에 돈박(敦林)한 사람을 진출시켜 조급한 무리를 눌렀는데 재상이 되어도 한 결같이 하였는데 급기야 서거하였다"고 하였다. 임금은 4일간 조회를 폐하고 관에 상사를 돕도록 하니 장사는 다음해 3월에 하였다.

중종 23년 출성(忠成)의 시호가 내렸다. 신도비문은 양관 대제학 이행(李行)이 지었다. 묘소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마국산 선고묘 계하에 쌍분이다. 불천위(不遷位)의 은전이 내려 부조묘(不祧廟)가 묘하에 있다.

신도비명에 "하늘과 더불어 세상의 의표가 되었으니 뭇사람이 어려운바 되었어도 공은 마땅이 처신하였네 명주(明主)를 만나서는 베풀어 발휘하니 혁혁한 암랑(岩廊)에서 지위는 재상에 이르렀네 수한(壽限)을 누리지 못하니 방국(邦國)의 슬픔이로다. 유택에 지문(誌文)으로 쓰고 빗돌에 새기니 뒤에 오는 자들이 징험한다면 그 문사(文辭)에야무슨 부끄러움이 있으라"

신도비와 공을 추모하기 위한 영모재(永慕齋) 및 사당은 모가면 산내리 116번지 마을 안에 있다.

공은 준(準)과 수동(壽東) 두 아들을 두었는데 준(準)은 후 사가 없어 현(鉉)의 아들 찬(秦)을 계자(繼子)로 하니 통정대 부 여주, 과주목사를 지냈다. 묘소는 충성공 계하에 있다.

22세 숙(俶)은 통훈대부 풍저창수(倉守)이며 묘소는 산내리 마국산 선영 좌록에 있다.

23세 진(雞)은 어모장군(禦海將軍) 충좌위 부사과(副司果)를 지내고 장약원정에 이르렀다. 묘소는 이천 장수의 요 광사에서 선영 선고 계하로 이장하였다.

24세 액(詻)은 통덕랑이며 묘소는 선영 선고 계하로 이장하였다.

25세 중(重)은 통덕랑(通德駅)이며 미수 허목(許穆)의 문인이다. 묘소는 매곡리에서 선영 선고 계하로 이장하였다.

#### 17世 참의공(參議公) 선(繕), 소(紹), 승(繩)

상(詳)의 2자 선(繕)은 태종 2년 식년시 문과 급제하고 태종 6년 예조좌랑, 세종 9년 연안 도호부사(都護府使), 세 종 21년 예조참의에 보임되었다.

묘소는 여주 왕대리 영릉자리에 있었는데 능서면 백석리에 3만평 사지를 받아 세장지를 이루었다. 참의공은 현감정(精)과 이현(以腎) 두 아들을 두었다.

18세 정(精)은 통훈대부 현감이며 세조 6년 실록에 평안도 순안현령을 지냈다. 묘소는 선고계하에 있다.

손(孫)은 진위장군 부사용(副司勇) 율(慄),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연주(聯珠), 현감 상(祥), 생원 임(袵), 찬 (襸)이고 율의 묘소는 백석리 선고계하에 있다.

증손(曾孫)은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팽로(彭 老), 가선대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지낸 팽 년(彭年), 관찰사를 지낸 추(錘), 병절교위 승종(承宗)인데 승종은 중종 20년 43세로 전라도에서 창궐하여 살육을 일삼 던 왜구와 4년 동안 분전하다 47세로 장열히 전사하였는데 부인 덕산이씨가 단신으로 나아가 부군의 시신을 찾아 거 두니 열녀로 일컬어졌으며 효성을 겸비하여 부도의 의표가 되었다. 공은 후에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추증되었다. 묘 소는 익산시 팔봉동 산1번지에 있다.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오위장 팽년(彭年)의 묘소는 여 주군 백석리 선고 계하에 있다.

상(詳)의 3자 소(紹)는 태종 9년 울진만호를 지내고 태종 17년 지정선군사를 지냈다. 세종 8년 실록에 대호군으로 나 옥다

상(詳)의 4자 승(繩)은 평안도 영유현감을 지냈다. (끝) (현봉 권경석 편술)



△17세 참의공 선 묘소(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18세 현감 정 묘소(선고 계하)



△19세 진위장군 율 묘소(선고 계하)



△20세 수군절도사 팽년 묘소(선고 계하)



△18세 녹사 미 묘소(선고 계하)





△19세 길창부원군 형 묘소(선고 계하)



△23세 어모장군 진 묘소(선고 계하)





△24세 통덕랑 액 묘소(선고 계하)



△21세 목사공 찬 묘소(선고 계하)



△25세 통덕랑 중 묘소(선고 계하)